

덕 담 ----- 가족 대표
가족 중 큰 어른의 덕담을 듣는 시간입니다.

찬 송 가 ----- 301장 ----- 다 같 이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를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의 기도 -----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추석 명절 가정예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인도: 신양세대주

시작하는 말 ----- 인 도 자

그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석 명절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조용한 기도 ----- 시편 1:1-2 ----- 인 도 자

¹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²오직 여호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찬 송 가 ----- 559장 ----- 다 같 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 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하루하루

기 도 ----- 가 족 대 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가운데 여호와 이레가 되어 주사,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평생토록 주님의 가정으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 시편 37:3-6 ----- 인 도 자

⁵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⁶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말 씀 선 포 ----- 인 도 자

오늘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분주하게 살아온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행복한 시간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각자가 추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었다고
행복할까요? 잠시 잠깐은 행복한 꿈 가운데 있을지는 모르나 영원히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꿈꾸는 목적을 이룰 때 자신의 인생이 성공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는 나의 목적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릴 때 진정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며 사는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인생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깨
닫게 하십니다. 5절에서 다윗은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여호와와 길을 떠나지 않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며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
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승승장구 할 때 뿐만 아니라 자신을 시기하는 사울 왕
에게 쫓겨 목숨의 위협을 경험했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고난과
역경의 순간을 견디어 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길을 따르는 다윗의 모습은
선한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다윗을 바라보며 그가 왕이 되었
기 때문에 성공했고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오직 하나님
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자신의 인생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며 나아갔을 때 다윗
의 삶을 놀랍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말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십니다.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정오의 태양과 같이 그 인생을 들어 쓰시는 분
이십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담아두는 것이 아닌
흘려보내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 인도자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족과 함께 명절의 기쁨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말씀을 청종하여, 가정의 평안과 자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 우리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믿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명절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의 섭리를 깨닫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충만히 맺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이웃들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임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 송 가 ----- 401장 ----- 다 같이

1. 주의 곁에 있을 때 맘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2.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3.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후렴)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님의 기도 -----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추석 명절 추도예식

고인을 추모하고 생전의 은덕과 뜻을 기리며
경건한 마음으로 예식을 준비합니다.

인도: 신앙세대주

시작하는 말 ----- 인도자

오늘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나라에 가신 부모님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추도예식을 시작합니다

조용한 기도 ----- 잠언 3:1-4 ----- 인도자

¹내 아들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²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³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⁴그리하면 네가 하나님
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찬 송 가 ----- 559장 ----- 다 같 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 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하루하루

기 도 ----- 가 족 대 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추도예식을 거행하오니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부모님의 은덕과 뜻을 기억하며 추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 열왕기하 22:1-2 ----- 인 도 자

- ¹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팔 세라 예루살렘에서 삼십일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²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추 모 사 ----- 인 도 자

고인의 유언, 유훈(음성), 유품, 행적을 회고하며 서로 교훈을 나눈다.

말 씬 선 포 ----- 인 도 자

무더운 더위가 지나고 몸과 마음에 풍성함을 가져오는 가을의 푸른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믿음을 기억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시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구원이시다”입니다. 요시야는 그 이름의 의미대로 순종하여 선대의 왕들이 행하던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요시야의 모습은 2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수많은 이전의 왕들이 추진했던 일들, 그리고 온 나라와 백성들이 해온 일들을 영적으로 쇠신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있었을까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분명한 자기 철학과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 의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수 1:7)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흔들리기’시작합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칩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는 변함없이 오래갑니다. 그런데 가짜는 처음에는 화려하고 반짝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색이 오래가지 못하고 바래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신앙은 고난 속에서도 더욱 빛을 드러냅니다. 칠후같이 어두운 밤하늘 아래에서 별빛이 더욱 밝게 빛나듯이 진짜 신앙은 고난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러나 짝퉁 신앙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며 무너집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부모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부모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믿음의 유산을 따라 언제나 하늘의 축복을 이어나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